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태현 사무처장 대독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경제의 반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질 GDP(전기대비 증감률, %): ('20.1/4) △1.3 (2/4) △3.2 **(3/4) 1.9**

9월중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10월중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승하는 등 하반기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9월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 증감률, %): (생산) 2.3%, (소비) 1.7%, (설비투자) 7.4

\*\* 소비자심리지수: ('20.2월) 96.9 (4월) 70.8 (8월) 88.2 (9월) 79.4 **(10월) 91.6**  
기업경기실사지수: ('20.2월) 65 (4월) 51 (8월) 66 (9월) 64 **(10월) 74**

금융권이 합심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히 자금을 지원한 것이 이러한 경기회복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 **2조원 돌파**(10.30일 기준 2.4조원 지원)

다만, 8월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없었다면 경기회복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간소비(전기대비 증감률, %): ('20.1/4) △6.5 (2/4) 1.5 **(3/4) △0.1**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불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1. 금융시장 현황 및 리스크 요인 ]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중 회사채(12.9% ↑)와 CP·단기사채(12.0% ↑)의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확대되었고,  
신용 스프레드\*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사채 AA-(민평4사, 3y, bp) : ('20.2월) 41.3 (3월) 60.7 (5월) 77.6 (8월) 60.2 **(10.29일) 57.4**  
CP A1(최종호가수익률, 91일물, bp) : ('20.2월) 44.3 (3월) 129.1 (5월) 101.3 (8월) 71.9. **(10.29일) 47.4**

정부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판(backstop)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기업 자금조달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회사채 순발행(만기도래액-발행액) 금액(억원) : ('20.3월) △860, (4월) 3,210, (5월) 22,040,  
(6월) 22,870, (7월) 7,080, (8월) 1,700, (9월) 2,070, (10월) 6,840

두 시장 안정판이 회사채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가 7월말 이후  
A등급 이하 비우량채를 매입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투자자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 회사채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모집금액 대비 참여금액,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제외) :  
[A등급 이하] (7월) 0.5 → (10월) 4.3, [AA등급 이상] (7월) 4.4 → (10월) 4.9

다만, 美 대선 결과 및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美·EU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 2-2. 금융권의 적극적 자금지원 활성화 ]

최근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외신\*은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한 비결로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와 함께,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비대면 활동확산에 따라  
한국 기술부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robust tech exports)하였다는 점을  
손꼽고 있습니다.

\* (FT) "South Korea virus plan underpins GDP jump"  
(WSJ) "Why the U.S. can't replicate South Korea's impressive economy recovery"  
(Bloomberg) "The real winner of the work-from-home economy"

마침 오늘, '20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대형은행) 1위 신한, 2위 하나, (소형은행) 1위 경남, 2위 부산

지난 6개월 간,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금융 역량 강화와 혁신기업 지원도 지속해 왔습니다.

\*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7년말) 127.7 ('18년말) 163.8 ('19년말) 205.5 ('20.8월말) 251.8  
\*\*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잔액비중(%) : ('19.6월) 28.2 ('19.12월) 29.0 ('20.8월) 32.9  
차주수비중(%) : ('19.6월) 46.0 ('19.12월) 46.7 ('20.8월) 49.3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  
혁신기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의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은행연합회, 10.26일)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

감독당국의 면책제도와 금융회사 자체 면책 시스템의 정합성이 제고되고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된 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함 없이,  
생산적이고 필요한 분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 2-3.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기업 사업재편 등 경쟁력 제고 지원 ]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습니다.

\* 10월말 현재 47개 신청수요기업 중 10개 기업 선정 → 1개(지원완료), 3개(인수가격결정)

9월 최초 지원사례\*를 시작으로  
11월부터는 여러 가지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두산타워 매각(8,000억원) 관련 펀드에 캄코가 LP(펀드지분투자)로 1,600억원 투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예정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예방적·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을 구성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8월 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70여개 업체에 대해 총 2,1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기존 2,400여개에서 3,700여개로 확대(10.20일)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적극적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 3. 마무리 말씀 ]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뒤쳐질 경우  
개별 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경쟁우위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뉴딜펀드(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4,843억원)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11.6일 디지털 뉴딜 분야(Data·AI·5G)를 시작으로  
사업분야 별로 투자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하여  
뉴딜 분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